

전쟁의 악행을 멈추고 평화의 길을 추구하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시편 34 장 14 절)

우리, 연합감리교 한인총회의 평화위원회,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과 국민을 상대로 불필요하고 비인간적으로 자행하는 전쟁의 악행을 개탄한다.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가 전쟁의 악행을 즉각 중단하고 휴머니티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평화의 길로 돌아설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의 민중들은 300 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대부분은 살아서 다시 만나지 못한 1000 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을 발생시킨 한국전쟁의 참혹한 희생을 목격한 바 있다. 전쟁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더 깊은 적대감을 낳을 뿐이다. 전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연대하여 전쟁의 악을 청산하고, 평화의 길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절박하고 용기 있는 요청에 동참하고자 한다.

만민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적대감의 벽을 무너뜨린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모든 적의를 멈추고 전쟁의 악에 맞서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걸으며,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그들과 세계의 모든 기도하는 마음과 손길에 동참하고자 한다.

평화위원회

연합감리교 한인총회